

## < 要 約 >

### I. EU의 内部 結束 強化

- (背景) 80년대 EU(European Union)의 내부 결속 강화는 1974-75년 세계 경제 불황 이후 EU 경제의 심각한 정체와 미국, 일본과의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는 위기 상황 인식에서 비롯됨
- (内容) EU 국가들은 종래의 관세 동맹 수준에서 나아가 역내의 모든 장벽 철폐를 통한 EU 경제의 구조 조정을 추구함
  -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의 완전한 역내 자유 이동 보장
  - 통합의 직·간접 이익은 약 200억 Ecu로 추산되며, 연간 GNP 성장률이 7%,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약 5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影響) EU의 시장 통합을 통한 내부 결속 강화는 非EU 국가들에게 역외국 차별 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킴과 동시에 非排他的 자유 무역 정신에 역행하는 것으로 인식됨

### II. 統合 이후 EU 對外 政策

- (對外 政策) 종래 EU의 대외 정책은 전통적으로 유럽의 영향력 하에 있는 국가를 비롯한 EU 인근국을 중심으로 하는 제한적·배타적 정책임
  - 즉 EU의 EFTA 및 동유럽으로의 확대는 일반적으로 큰 유럽을 지향하는 한편, 아프리카, 지중해 연안 국가로의 확대는 선·후진국간의 수직적 국제 분업 관계를 추구하는 것임
- (對外 政策의 變化) EU 통합에 자극된 非EU 국가들의 지역화 움직임에 직면하여 EU는 폐쇄적 확대 정책을 포기함
  - 95년 마드리드 EU 정상 회담에서 EU 회원국의 확대 및 타 경제 블록간의 경제 협력 강화를 논의 함
    - NAFTA와 범대서양자유무역지대(TAFTA)를 구상
    - 아시아 국가들과 아시아-유럽 정상 회의(ASEM)를 개최 예정임
    - 그 외 EU-MERCOSUR, EU-남아공 간의 자유 무역 지대 창설에 합의하거나 협상을 진행 중임

### III. 아시아-EU 協力 體制

- (背景) 아시아-EU의 협력 체제의 강화는 상호 의존의 필요성에서 출발
  - 아시아 지역이 미래 세계 경제의 성장축으로 浮上하면서 EU는 이 지역이 APEC을 통해 미·일에 귀속되는 것을 억제하고자 함

- 아시아 지역은 對EU 수출의 불리함을 이번 아시아-유럽 정상 회의를 계기로 만회하려 함
- 미국의 통상 정책에 아시아와 유럽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음
- (經過) 1978년 EC와 ASEAN이 최초로 각료 회의를 개최한 이후, 1996년 3월 아시아-EU 정상 회의(ASEM)의 개최(방콕)를 합의함
- (內容) 25개국이 참석하는 ASEM은 규모 면에서 18개국이 참가하는 APEC보다 더 큼
  - 제1차 ASEM에서는 정치 분야, 경제 협력 등 3개 분야 9개 議題를 중심으로 아시아-EU 간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 제1차 ASEM 이후 점차 확고한 조직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됨
  - 제2차, 제3차 ASEM의 장소는 각각 영국과 우리 나라가 유력함
- (意義) ASEM에서는 경제 협력 외에도 국제 정치·사회 문제도 현안으로 채택되어 진정한 협력 관계가 기대됨
  - 과거 중주국-식민지 관계를 청산하고 대등한 동반자 관계를 시작함
  - APEC에 이어 ASEM에서도 '개방적 지역주의'를 추구함으로써 배타적 경제 블록의 형성을 억제함

#### IV. EU의 對아시아 政策 變化와 對應

- (關係 展望) ASEM을 계기로 여러 분야에서 對EU 관계 증진이 예상됨
  - 경제 및 산업 기술 교류에 도움
  -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지지 확보
  - 우리 기업의 경우도 활발한 對EU 진출 뿐 아니라 對아시아 시장에서 EU 기업과 공동 진출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우리의 役割) 우리 나라는 장래에 APEC, ASEM, TAFTA로 구성될 3극 체제가 대립보다는 WTO 체제 속에서 하나로 수렴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함
  - 우리 나라는 ASEM내에서 일본, 중국보다는 중간자적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도적 역할이 기대됨
  - 이를 위해 우리가 소속된 APEC 및 ASEM에 적극 참여,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제3차 ASEM의 서울 개최를 강력하게 추진
  - APEC과 ASEM의 의견 조율에 노력

## I. EU의 内部 結束 強化

- (背景) EU의 내부 결속 강화는 80년대全般에 걸친 EU 경제의 심각한 정체와 미국, 일본과의 경쟁에서 계속 낙후하고 있다는 위기 상황 인식에서 비롯됨
  - 저성장·고실업으로 대표되는 EU 경제 침체의 배경에는 제조업에서의 노동생산성 낙후와 産業 空洞化가 있음
- (内容) EU 국가들은 종래의 관세 동맹과 같은 제한적인 시장 통합 방식에서 더 나아가 역내 모든 장벽의 철폐를 통해서만이 EU 경제의 구조조정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함
  -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의 역내 완전한 자유 이동 보장
  - 통합의 직·간접적 이익은 약 200억 Ecu로 추산되며, 연간 GNP 성장률이 7%,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약 5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
- (影響) EU의 시장 통합을 통한 내부적 결속은 非EU 국가들에게 불안을 가중시킴
  - EU의 빠른 통합 움직임에 미국은 북미에서 NAFTA의 결성으로 대응하는 한편 아시아 국가들과 APEC을 통해 개방적 지역주의를 확대함

### 1. EU의 内部 結束 強化 背景

EU의 내부 결속 강화는 EU 경제의 심각한 정체 및 마일과 경쟁에서 낙후하고 있다는 위기 상황 인식에서 출발

- 80년대 EU(European Union)<sup>1)</sup>의 내부 결속 강화는 1974-75년 세계 경제 불황 이후 80년대全般에 걸친 EU 경제의 심각한 정체와 미국, 일본 경제와의 경쟁에서 계속 낙후하고 있다는 전반적 위기 상황 인식에서 비롯됨
  - 1980-82년간에 EU 주요국들은 줄곧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정도로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함
  - 이러한 저성장의 연속은 또한 만성적인 실업의 증

1. EU(European Union, 구주 연합)는 EC(European Community, 유럽 공동체)의 後身으로 1993년 11월 1일에 발족하였음. 이 글에서는 특별히 EC를 지칭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EU로 통일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함

- 대를 야기함
- 81년 8%의 실업률이 86년에는 11%까지 뛰어오르는 고실업이 恒常化되는 현상을 보임
  - ‘저성장·고실업’으로 대변되는 EU 경제의 침체 배경에는 제조업에서의 노동생산성 낙후와 그로 인한 産業 空洞化 현상이 있음
  - 첨단 산업 부문에서의 상대적 기술 낙후, 즉 전통 산업 부문에서 첨단 산업 부문으로 구조 전환이 美·日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했음
  - 역내 무역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EU 역외로의 수출이 부진했음
  -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정부 서비스 부문은 발달해 왔으나 민간 서비스 부문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함

<표1> 노동 생산성의 각국 비교\*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1) 強需要 部門**					
- 전기·전자 제품	28	47	43	100	236
- 사무·정보 처리 기계	37	43	45	100	94
- 화학 제품, 의약품	54	79	73	100	119
2) 中需要 部門**					
- 운송 기계	23	54	60	100	95
- 식품·음료·담배	56	73	47	100	37
- 종이·인쇄 제품	43	67	76	100	89
- 산업·농업 기계	20	49	46	100	103
3) 弱需要 部門**					
- 금속 제품	38	60	54	100	143
- 철·비철금속 제품	66	72	92	100	149
- 섬유·피혁·의료	50	62	71	100	53
- 비 금속 광물	40	64	71	100	43

자료: Commission of the EC(1988)

주: \* 노동자 1인당 부가 가치 기준, 1985년 미국(=100)에 대한 비교

\*\* 강수요: 수요의 신장세가 빠른 부문  
 중수요: 수요의 신장세가 일정한 부문  
 약수요: 수요의 신장세가 느린 부문

역내의 모든 장벽의 철폐를 통한 대규모 기업 활동만이 EU 경제의 침체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

- 이에 EU 국가들은 종전의 관세 동맹과 같은 제한적 시장 통합 방식에서 더 나아가 생산 규모가 생산 원가를 규정한다는 무역 이론에 입각하여 모든 장벽의 철폐만이 EU 경제의 구조 조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결론에 도달함
  - 모든 장벽을 철폐한다는 것은 EU 역내에서는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의 4가지 요소의 역내 자유이동을 완전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
  - 역내에서의 모든 장벽의 철폐로 이른바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에 기초한 최적 입지 플랜트가 생기게 되고, 대규모 기업 활동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EU 경제가 장기 침체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했음
  - 통합의 직·간접적 이익은 약 200억 Ecu<sup>2)</sup>로 추산되며, 연간 GNP 성장률이 7%,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약 5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함

표2. EU 경제 통합의 경제적 기대 이익

단계별 이익	10억 Ecu	GDP상의 %
1) 제 1 단계: 무역 장벽 제거에서 오는 이익	8~9	0.2~0.3
2) 제 2 단계: 생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장벽의 제거에서 오는 이익	57~71	2.0~2.4
1)+2): 장벽 제거에서 오는 이익	65~80	2.2~2.7
3) 제 3 단계: 규모의 경제를 활용함으로써 오는 이익	61	2.1
4) 제 4 단계: 기업의 비효율과 독점 이윤을 감소시키는 경쟁 강화에서 오는 이익	46	1.6
3)+4): 시장 통합에서 오는 이익	62~107	2.1~3.7

자료: Paolo Cecchini, *The European Challenge 1992* (이종환 譯, 「EC의 도전」, p.84)

2) 1981년부터 통용되고 있는 European Currency Unit의 약자로 1 Ecu의 가치는 \$1를 약간 상회함

## 2. EU의 内部 結束 強化 戰略과 世界 交易 秩序

유럽 시장의 통합은 물리적, 기술적, 조세 장벽의 철폐로 대표됨

- EU의 내부 결속의 강화 전략은 통합의 기대 효과를 예상한 유럽 시장의 통합으로 대표되는 바, 주로 3가지 갈래로 나누어 통합 작업이 추진되어 왔음
  - 물리적 장벽의 철폐: 역내 각국의 국경에 설치된 세관을 철폐, 국경을 통과하는 물건과 사람의 자유 이동을 보장
  - 기술적 장벽의 철폐: 역내 각국의 내부적인 법령이나 관습의 차이로부터 제기되는 각종의 비관세 장벽의 제거
  - 조세 장벽의 철폐: 간접 세율에 있어서 표준 세율 밴드를 설정, 그 안에서 나라별로 어느 정도 조정을 할 수 있게끔 추진

EU의 내부적 결속은 여타 국가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면서 자유주의적 교역의 세계적인 경향에 역행함

- 이러한 EU의 시장 통합을 통한 내부적 결속은 非 EU 국가들에게 역외국 차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킴과 동시에 자유 무역 이념에 역행하는 것으로 인식됨
  - EU의 빠른 통합 움직임에 자극을 받은 미국은 북미에서 NAFTA의 결성으로 대응하는 한편, NAFTA와 아시아 국가들로 구성된 APEC을 통해 개방적 지역주의를 확대함
  - EU의 ‘폐쇄적·배타적 지역주의’에 대해 미국 및 아시아 국가들은 NAFTA와 APEC 등을 통한 ‘개방적·확장적 지역주의’를 추구
  - 따라서 90년대 초까지 세계의 교역 질서는 WTO 출범을 앞두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확대 경향의 지역주의’와 유럽 및 ASEAN을 중심으로 하는 ‘내부심화 경향의 지역주의’ 사이에서 대결의 양상을 띠었음

## II. 統合이후 EU 對外政策

- (對外政策) 종래 EU의 대외 정책은 非EU 유럽 국가 및 아프리카 국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다소 폐쇄적인 정책임
  - 유럽 내부의 수평적 분업 관계를 확대시키고 주변국과의 협력 관계 중시한 배타적·방어적 경제 블록이있음
  
- (對外政策의 變化)
  - EU 통합에 대응하는 非EU 국가들의 지역화 움직임에 자극되어 EU는 폐쇄적 확대 정책을 포기함
  - 95년 마드리드 EU 정상 회담에서 EU 회원국의 확대 및 타 경제 블록과 경제 협력 강화를 논의함
    - NAFTA와 汎대서양자유무역지대(TAFTA)를 구상
    - 96년 3월 ASEAN 회원국 및 동아시아 국가들과 아시아-유럽 정상 회담 (ASEM: Asia Europe Meeting)을 가질 예정임

### 1. EU의 對外 擴大 政策

종래 EU 확대 정책의 특징은 '폐쇄적 지역주의'에 기초한 제한적 확대 정책으로 요약됨

- 종래 EU의 확대 정책은 '폐쇄적 지역주의'에 기초한 제한적 확대 정책으로 대상 지역은 대체로 유럽의 非EU 국가 및 아프리카 국가와의 관계에 한정되어 있었음
  - EU는 EFTA<sup>3)</sup>, 東歐 등 주변의 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ACP<sup>4)</sup>, Maghreb<sup>5)</sup> 등 여타국들과 다양한 특혜무역관계 체결하고 있음
  - EFTA 및 동유럽으로의 확대로 큰 유럽을 지향하는 한편 ACP 및 Maghreb 국가로의 확대는 선·후진국 블록간의 수직적 국제 분업 관계를 추구함

3) EFTA(Europe Free Trade Area): 스위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핀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의 7개국으로 구성된 유럽 자유 무역 연합

4) ACP(African, Carribean, and Pacific): 제3세계 46개국간의 경제 기구

5) 북아프리카 북서부의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를 지칭함

<표3> EU의 특혜 교역 관계

구 분	협 정 명	대 상 국	주 요 내 용	
쌍무적 특혜 무역 관계	자유무역협정	EFTA	· 84년 공산품 관세 완전 철폐	
		이스라엘	· 수량규제, 공산품 관세 철폐	
	준회원국 협정	지중해 연안국	· 공산품 관세 동맹 · 농산물의 제한된 양허	
		동구권	· 공산품의 EC 진출을 위한 관 세, 수량 조치의 장기적 철폐 · 향후 10년간 자유 무역 지대 건설	
	협력협정	ACP 제국	· EU의 재정 지원 및 자원 확보 · 교역확대를 위한 특혜 부여	
		Maghreb	· 원자재와 공산품의 EU 지역 수출 제한 철폐	
		유고슬라비아 걸프협력위원회 (AGCC)	· 공산품의 무관세 무제한 수입 · 최혜국 대우 · 관세 및 무역 규제 철폐	
		기타 지역간 협정	안도라 ASEAN ANDEAN	· 최혜국 대우 · 누적 원산지 및 GSP 적용 · 산업 협력, 금융 지원
	일방적 특혜 교역 관계		해외속령 및 영토, 이스라엘 점령지역	· GSP 공여 · 최혜국 대우 · 공산품 무관세
		GSP	약 150개 독립국 및 25개 속령	· 일반 공산품, 섬유류, 철강제품: 공여분에 완전 관세 면제

자료: 이대근, 세계경제론, 까치, 1993 등에서 발췌



- 즉 EU의 궁극적인 목표는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아프리카 블록(마르크 블록),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메리카 블록(달러 블록),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블록(엔 블록)이라는 3極 체제에 의한 세계 경제의 분할에 있었음

EU의 빠른 통합 움직임에 대항하는 미국 및 여타 국가들의 반응이 EU의 폐쇄적 확대 정책에 영향을 미침

○ 그러나 EU의 빠른 통합 움직임 및 유럽 고립주의에 대항하는 미국 및 여타 국가들의 반응이 EU의 폐쇄적 확대 정책에 영향을 미침

- 미국은 주변의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NAFTA를 결성(1992)함과 동시에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APEC의 결성을 구체화시킴
- 다른 한편으로는 WTO 체제에 의한 세계 경제의 단일화·자유무역화를 추진함
- 이에 따라 EU는 세계 경제로부터의 고립이라는 위기감에서 탈피하려고 EU를 순수유럽으로 확대 및 WTO의 정책을 준수하며 여타 경제 블록과의 경제 협력 강화 등을 모색함

## 2. EU의 地域別 提携 戰略

EU의 지역별 제휴 전략은 방어적 성격이 강한 주변 지역에 대한 제휴와 세계 경제로부터 고립을 방지하기 위한 아시아, 남미 지역으로의 접근으로 나눌 수 있음

○ EU의 지역별 제휴 전략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짐

- 유럽 및 유럽 주변국과의 전략은 방어적 성격이 강함
- 인근 국가의 경제적 낙후 상태를 방지할 경우 대량의 이민 유입 등으로 EU 내부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존재함
- 주변 지역에 대한 경제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유럽으로의 이민을 억제하는 한편, 전통적으로 유럽의 영향력 하에 있는 이들 국가들에 있어서 유럽 제품의 시장을 확보함
- 아시아, 남미 지역에서의 접근은 EU 통합 이후 세계 경제로부터의 고립 방지가 주목적임

- EU 통합을 통한 「유럽 요새화」에 대한 외부의 경제심의 완화를 목적으로 비유럽 국가들에 대한 유화 제스처로 해석됨
- EU 통합을 우려하는 미국의 지역화 전략에 대응, NAFTA 및 APEC의 일부 회원국들과 접촉함으로써 이들 기구 내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킴

95년 마드리드 EU 정상 회담에서 EU 회원국의 확대 및 타 경제 블록간의 협력 강화 등 EU 대외 정책에 관한 21세기적 과제를 마련함

○ 95년 마드리드 EU 정상 회담에서 EU 회원국의 확대 및 타 경제 블록간의 경제 협력 강화에 대해서 논의함

- EU 회원국의 확대 문제
  - 1998년초 EU 가입을 신청한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키프로스, 몰타 등과 가입을 위한 협상을 시작
  - 특히 헝가리, 폴란드 등은 2000년경에 가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
- 여타 경제 블록과의 경제 협력 관계 강화
  - 회담 기간중 EU-MERCOSUR<sup>6)</sup>간의 자유 무역 지대 창설에 합의함
  - 96년 상반기까지 쿠바와의 경제 협력 조약 초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함
  - 칠레, 멕시코와의 점진적이고 상호적인 경제 협력 조약안 수립을 EU 집행위에 위임함

○ 그 외 비유럽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경제 협력 관계의 확대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음

- 95년 11월 바르셀로나 선언을 통해 북아프리카와 중동 등 지중해 연안 지역의 12개국과 오는 2010년까지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기로 합의함
- 터키와 관세 동맹 합의, 튀니지, 모로코, 이스라엘, 이집트, 레바논, 요르단 등 이 지역 국가들과 통상

6) MERCO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4개국으로 구성된 남미 공동 시장. 남미 경제의 우등생인 칠레가 곧 가입 예정임

96년 3월 최초의  
아시아-유럽 공동  
정상 회담을 갖고  
양 지역간의 통상  
및 투자 확대 방안  
을 논의할 예정

- 및 원조 촉진을 위한 개별 협정을 체결했거나 체결할 예정임
-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와 汎대서양자유무역지대(TAFTA) 설립을 검토하는 한편 멕시코와 별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음
  - 남아공화국과 자유 무역 협정을 96년 발효를 목표로 협상이 진행 중임
    - 향후 10년간은 유예 기간으로 각각의 관세율에 따라 상품 교역을 하면서 남아공은 WTO 규정에 의해 관세를 인하
    - 이후 2년간 남아공 제품의 對EU 수출 시에는 무관세, EU 제품의 對남아공 수출 시에는 기본 관세율에 따름
    - 12년 이후부터는 EU·남아공간의 완전한 자유 무역 추진
  - 96년 3월 1일에서 2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아시아 지역 국가(ASEAN 7개 회원국 및 한국, 중국, 일본)들과 최초의 아시아-유럽 공동 정상 회담(ASEM)을 갖고 양 지역간의 통상 및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 III. 아시아-EU 協力 體制

- (經過) 1978년 EC-ASEAN 각료 회의가 개최된 이후, 1996년 3월 최초로 아시아-EU 정상 회담(ASEM)이 개최됨
- (背景) 아시아-EU의 협력 체제는 상호 필요성에서 출발
  - 아시아 지역이 미래의 세계 경제의 성장축으로 부상함에 따라 EU는 이 지역이 APEC을 통해 마·일에 귀속되는 것을 억제하고자 함
  - 아시아 지역은 종래의 대EU 수출의 불리함을 이번 기회에 만회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음
  - 국제 통상 관계에 있어서도 미국의 통상 정책에 공동으로 대응함
- (意義) ASEM에서는 경제 현안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사회 문제도 현안으로 채택 진정한 협력 관계를 기대함
  - 과거 종주국-식민지 관계의 청산과 대등한 동반자 관계의 시작
  - APEC에 이어 ASEM에서도 개방적 지역주의를 추구함으로써 배타적 경제 블록의 형성을 억제함
- (內容) 25개국이 참석하는 ASEM은 규모 면에서 18개국이 참가하는 APEC보다 더 큼
  - 제1차 ASEM에서는 정치 분야, 경제 협력 등 3개 분야에서 아시아-EU 간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 제1차 ASEM 이후 점차 확고한 조직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

#### 1. 아시아-EU 協力 關係의 經過

아시아는 그 동안 유럽과의 관계보다는 경제적·안보적 이유로 對美 관계에 치중해 왔음

○ 아시아는 그 동안 EU와의 관계보다는 정치적·경제적·안보적인 이유로 對미국 관계에 치중해 왔으며, EU의 경우도 인근 지중해 연안국 및 아프리카 국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왔음

○ 아시아-유럽간 협력 관계 추이 가운데 주요 동향은 아래와 같음

- 1978년 EC와 ASEAN이 최초의 각료 회의 개최
- 1980년 EC와 ASEAN이 경제 협력 협정 조인
- 1992년 EC가 東티모르 인권 문제와 연계, 對ASEAN 협력 협정 체결 연기

- 1994년 싱가포르의 고촉통(吳作棟) 총리가 아시아-유럽 정상 회담을 제안
- 1995년 8월 ASEAN 확대 외무 장관 회의에서 프랑스 핵실험 계획을 비난
- 1995년 11월 콜 독일 총리가 중국, 베트남 순방
- 1995년 12월 방콕에서 EU 부위원장과 ASEAN 각료가 회담, 협력 강화 등을 제시
- 1996년 3월 1-2 양일간 최초의 아시아-EU 정상 회담이 개최될 예정

## 2. 아시아-EU 協力 體制 強化의 背景

아시아-EU 협력 체제의 강화 배경은 상호간의 정치·경제적 필요성에서 출발

- 아시아-EU의 협력 체제 강화는 서로의 필요성에서 출발함
  - ASEAN을 포함하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빠른 경제 성장으로 향후 이 지역이 세계 경제의 성장축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EU는 이 지역이 APEC을 통해 美·日에 귀속되는 것을 억제하고자 함
  - EU의 對아시아 교역 규모는 1994년 기준으로 볼 때 이미 EU-북미간의 교역 규모를 초과하고 있으나, 아시아 국가들은 對북미 의존도가 더 높은 실정임
  - EU의 총수출입에서 아시아와 북미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9.3%, 7.8%인데 비해, 아시아의 총수출입에서 EU와 북미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8.4%, 28.7%임(표4, 표5 참조),
  -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對EU 수출에 있어서 EU 인근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했기 때문에 아시아-EU의 협력 체제 강화를 환영하고 있는 입장임

<표4> ASEM 회원국 교역 관계(1994)

(단위:백만 US\$)

수출 \ 수입	E U	ASEAN	일본	중국	한국	세 계
E U	1,074,846	36,625	33,179	16,416	12,897	1,603,585
ASEAN	39,528	57,230	37,356	6,732	7,728	257,472
일 본	644,902	61,027	-	18,687	24,361	395,201
중 국	16,225	6,728	21,490	-	4,376	120,822
한 국	11,447	12,418	13,523	6,203	-	96,040
세 계	1,440,343	255,503	249,203	105,117	93,044	-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각호  
 주: 수출 합계와 수입 합계는 통계 기법상 차이가 날 수 있음

<표5> 아시아·유럽·북미의 교역 구조(1993)

(단위:10억 US\$)

수출 \ 수입	북 미	유 럽	아 시 아	전 체
북 미	217	130	153	610
유 럽	132	1,241	158	1,701
아 시 아	277	178	444	965
전 체	709	1,659	832	

자료: 세계 은행

EU와 아시아 국가들은 동반자 관계의 구축을 통해 미국의 일방적인 통상 정책에 공동 대응

- 아시아 국가들과 EU는 미국의 일방적인 통상 정책에 대항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음
- EU와 아시아 국가들은 95년 자동차 및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미국이 무역 보복 위협을 통해 불공정한 이득을 얻어낼 것으로 믿고 있음
- 따라서 양측은 무역 및 투자 분야에서 광범위한 동반자 관계의 구축을 통해 미국의 통상 공세에 공동 대응할 방안을 모색함

### 3. 96 아시아-EU 頂上 會談(ASEM)의 意義

「더 큰 성장을 위한 아시아-유럽의 동반자 관계」라는 주제로 96년 3월 방콕에서 첫 모임

- 「더 큰 성장을 위한 아시아-유럽의 동반자 관계 (Asia-Europe Partnership for Greater Growth)」라는 주제로 아시아, 유럽 각국의 정상들이 96년 3월 1, 2일 태국의 방콕에서 첫 모임을 가지게 됨
  - 참석 대상 국가는 아시아 지역에서 아세안 7개국,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EU측에서는 EU 집행위 및 15개 회원국이 참여함
  - ASEM(총 25개국)은 규모 면에서 18개 회원국이 모이는 APEC보다 더 큼
  - 그러나 ASEM은 이미 어느 정도 구속력 있는 지역 협력체로 발전한 APEC에 비해 훨씬 느슨한 형태의 협력 대화 채널로 출범할 것으로 보임

제1차 ASEM에서는 정치-경제 등 3개 분야에서 아시아와 유럽 지역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

- 제1차 ASEM에서 각국 정상들은 정치 대화, 경제 협력 등 3개 분야에서 9개의 의제를 중심으로 아시아와 유럽 지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함
  - 경제 협력 강화
    - 개방적 지역주의의 확산 및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협력 체제의 강화
    - 무역 투자, 기술 교류의 확대
    - 기업과 민간 분야의 협력 강화
  - 정치 대화 분야
    - 아시아-유럽 지역의 정치 안보 상황 평가
    - 유엔의 역할 등 국제 정치 현안(평화 유지 활동)
    - 군비 통제, 군축 및 핵비확산
  - 이와 함께 인적 자원 개발, 인프라 확충, 빈곤 퇴치

7) 동북아 3국(한국, 중국, 일본), ASEAN 7개국(태국,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EU 15개 회원국(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덴마크, 스페인, 포르투갈, 핀란드, 스웨덴, 그리스)

등 개발 협력, 환경, 마약, 테러, 국제 범죄 등 범세계적인 문제에 대한 협력, 상호 이해 증진 등 문화 협력 등이 논의될 예정임

ASEM에서도 개방적 지역주의를 지향함으로써 세계 경제의 블록화 현상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

ASEM에서는 경제 협력 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사회 현안들도 의제로 채택, 양 지역간의 진정한 협력 관계를 기대함

○ EU는 개방적으로 진행될 제1차 ASEM이 점차 확고한 조직으로 발전하게 될 것으로 전망

- 제1차 ASEM 이후, 2~3년 이내에 각료급 회의 개최 구상
- 또한 96년 12월 싱가포르 WTO 각료 회의 개최 이전에 무역 및 투자 환경 개선과 관련된 비공식 고위급 회담을 개최할 예정
- 제2차 아시아-EU 정상회담은 98년 유럽(영국)에서 개최 예정

○ 아시아-EU의 협력 체제의 강화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짐

- APEC에 이어 ASEM에서도 개방적 지역주의를 지향함으로써, 세계 경제의 배타적 블록화의 억제 및 WTO 체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 개방적 지역주의는 세계 경제가 단일화로 나아가기 위한 전 단계로 파악됨
- 따라서 WTO가 자유 무역 원칙의 철저한 관철을 도모하고 있지만 각국의 첨예한 이해 관계가 대립하므로, APEC 및 ASEM 등 개방적 지역주의를 통한 WTO 체제로의 점진적인 수렴이 바람직함
- ASEM에서는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사회 현안들도 議題로 채택, 양 지역간의 진정한 협력 관계를 기대함
- 즉 아시아-EU간 정치·안보 협력을 통해 두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기여
- 과거 종주국-식민지 관계에서 벗어나 대등한 협력 관계의 추구가 이루어질 전망임



## IV. EU의 對아시아 政策 變化와 對應

- (關係 展望) 우리 나라는 종래 EU의 배타적 경제 블록으로 인하여 정치·경제적 관계가 소원했으나, ASEM을 계기로 여러 분야에서 對 EU 관계 증진이 기대됨
  - 경제 교류 및 산업 기술 교류에 도움
  -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
  - 월드컵 유치에도 일정한 공헌을 할 것으로 판단됨
  - 우리 기업의 경우도 ASEM을 계기로 對EU 진출이 활발해질 뿐 아니라 對아시아 공동 진출의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우리의 役割) 우리 나라는 APEC, ASEM, TAFTA로 구성될 3極 체제가 대립보다는 WTO속에 하나로 수렴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함
  - 對EU 관계에 있어 우리 나라는 일본, 중국보다는 정치·경제적인 관점에서 중간자적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도적 역할이 기대됨
  - 이를 위해 우리 나라가 소속된 APEC 및 ASEM에 적극 참여,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제3차 ASEM 개최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1. 우리 나라의 對EU 關係 展望

우리 나라는 종래 EU의 배타적인 경제 블록으로 인하여 경제 교류가 상대적으로 미미했음

- 종래 EU의 배타적인 경제 블록으로 인하여 韓·EU간 경제 교류는 EU의 경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했음
  - 95년 우리 나라의 對EU 수출은 1백36억 달러(통관 기준)이며, EU로부터 수입은 1백 82억 달러(통관 기준)로 우리나라 총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2%를 차지함
  - 우리 기업의 對EU 누적 투자는 총11개국 9억 4천만 달러로 우리의 총 대외 투자의 10.5%에 그침
  - 한편 EU의 對韓 투자는 총 13개국에서 28억 7천만 달러로 對韓 누적 투자의 20%에 달함

우리 나라의 對EU 관계는 경제·산업 교류의 확대는 물론 정치적 협력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ASEM을 계기로 우리 나라의 對EU 관계는 경제 교류, 산업 기술 교류의 확대는 물론 정치적 협력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EU와 정치적 협력을 통해 안보 환경 개선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
  - 지역간 안보 협력을 위한 공동 노력과 함께 EU의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KEDO)'에 참여 확대를 유도

ASEM을 계기로 우리 기업의 對EU 진출이 활발해질 뿐 아니라 對아시아 공동 진출의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

- ASEM을 통해 우리 기업의 對EU 진출이 활발해질 뿐 아니라, EU 기업과 컨소시엄을 통한 對아시아 진출의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우리 나라는 91년 이후 對EU 교역에 있어서 적자는 상당 부분 EU의 반덤핑 규제 강화에 기인함
  - 따라서 ASEM을 통해 한-EU 통상 현안의 원만한 타결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함
  - ASEM을 통해 한-EU간에 존재했던 문화적·지리적 격차를 좁혀, EU 기업의 한국 유치 및 우리 기업의 EU 진출을 강력하게 추진함
  - 우리 나라의 중요한 해외 투자 지역인 동남아시아, 인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은 EU 기업과의 경쟁을 지양하면서 공동 진출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6> 한국의 對EU 교역 추이

(단위: 백만 US\$, %)

구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수출 (증감률)	8,875 (19.7)	9,728 (9.6)	9,237 (5.1)	9,415 (2.0)	10,545 (12.0)	13,600
수입 (증감률)	8,421 (29.6)	9,879 (17.3)	9,585 (3.0)	10,170 (6.1)	12,204 (20.0)	18,200
무역수지	451	-151	-352	-755	-1,659	-4,600

자료: 관세청

주: \* 95년 자료는 통관 기준임

## 2. ASEM에서 우리 나라의 役割

ASEM은 애초 ASEAN 독자 외교 노력과 EU의 대외 경제 정책 다각화의 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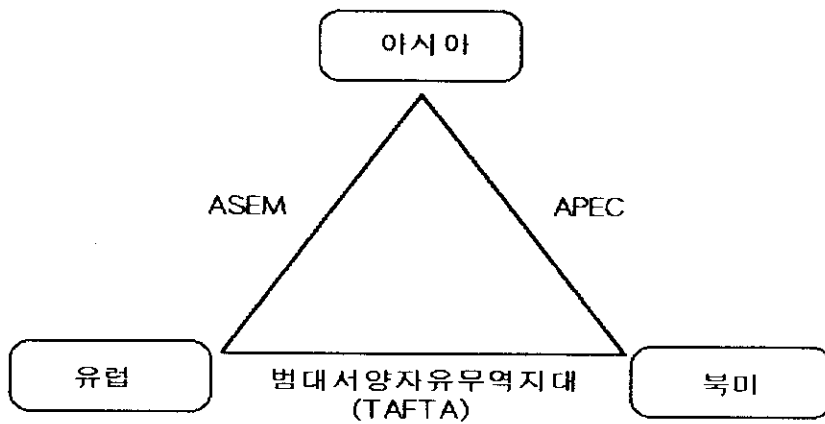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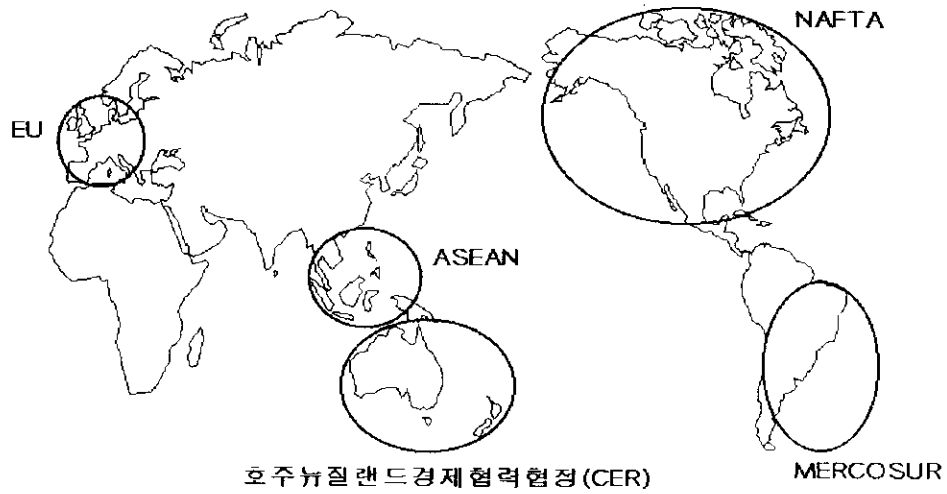
- ASEM은 ASEAN의 독자 외교 노력과 EU의 대외 경제 정책의 다각화의 결실이므로 우리 나라를 비롯한 동북아 3국은 ASEM 내부에서의 위치가 공고하지 않음
  - 특히 ASEM에서는 미국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마찰이 발생할 경우 우리 나라에게는 상당히 곤란할 것으로 예상
  - ASEM 내부에 있어서도 EU의 '인권 문제' 채택을 둘러싼 ASEAN-EU의 갈등에서 우리 나라가 입장을 표명하기에는 미묘한 위치에 있음
  - 우리가 ASEAN의 입장을 지지한다면 EU의 눈에는 우리 나라도 인권탄압국으로 비칠 우려가 있으며, EU의 입장을 지지한다면 우리의 최대 시장인 ASEAN 국가들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음

ASEM은 APEC, TAFTA와 함께 아시아-유럽-북미를 연결하는 3極 체제의 완성을 의미

- 그러나 ASEM은 APEC, TAFTA와 함께 아시아-유럽-북미 등 3極간의 협력 체제의 완성을 의미하므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 즉, ASEM을 3極 체제 시대의 정치·경제적 대화 통로로 적극 활용함
  - 우리 나라는 ASEM 뿐만 아니라 APEC에서도 3極 체제의 상호 대립을 지양하면서 이들이 WTO 체제에서 하나로 수렴되게 적극 유도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2000년 혹은 2002년 제3차 ASEM의 서울 개최를 강력하게 추진, 우리 나라가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함

(이 원 호)

<부록1> 廣域 經濟 블록間 協力 現況



<부록2> 主要 經濟 協議體 現況

	ASEM	APEC	EU	NAFTA
형태	지역경제협력체	지역경제협력체	경제통화동맹	자유무역협정
중·장기 목표	APEC 수준의 협력체 달성	2020까지 역내 무역 자유화	정치·사회 통합 추구	남미국가를 포함 FTAA 구성
대상지역	EU·아시아	아시아·태평양	유럽**	북미주
회원국수	25개국	18개국	15개국	3개국
총 GNP 규모*	\$12조 9천930억	\$15조4천610억	\$7조700억	\$8조7천410억
총 교역 규모*	\$4조7천9십억	\$3조7천8십억	\$3조1천660억	\$1조5천290억

주: \* 1994년 기준

\*\* 스위스, 노르웨이, 동구권 국가 제외

<부록3> ASEM 參席 各國 頂上

參席 國家	國家 頂上	參席 國家	國家 頂上
한 국	김영삼 대통령	이탈리아	마카니크 총리
일 본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	네덜란드	콕 총리
중 국	리펑(李鵬) 총리	벨 기 에	드안느 총리
싱가포르	고축통(吳作棟) 총리	룩셈부르크	취잉커 총리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총리	아일랜드	브루톤 총리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대통령	덴 마 크	피터슨 총리 대행
태 국	반한 총리	그 리 스	스미티스 총리
필 리 핀	라모스 대통령	스 페 인	웨스텐도르프 총리 대행
브루나이	하사날 국왕	포르투갈	구테히스 총리
베 트 남	키에트 총리	스 웨 덴	엘름발렌 총리 대행
영 국	메이저 총리	핀 란 드	리포넨 총리
독 일	콜 총리	오스트리아	브라니츠키 총리
프 랑 스	시락 대통령	EU 집행위	상테 위원장